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15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비타500 월드바스켓볼 챌린지(WBC) 2006 경기에서 미국의 드웨인 웨이드가 한국 수비를 피해 슛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랑이 '광복절 소나기打'

KIA, 홈런 2개 등 12안타…삼성에 12대2 대승

"오늘 시원하셨나요"

KIA가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속에 야구장을 찾은 3천300여 홈팬들에게 시원스런 홈런쇼로 보답했다.

KIA는 광복절인 15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선발 그레이싱어의 7이닝 5안타, 2실점 호투속에 이현곤과 스캇의 홈런포 등 장단 12안타를 터트리며 12-2로 승리했다.

그레이싱어는 이날 승리로 시즌 10승(10패)째를 올렸다.

KIA는 이현곤의 투런포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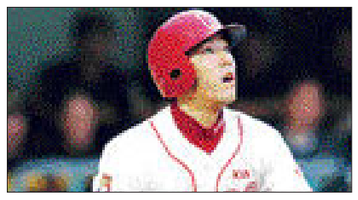
2회말 무사 1루서 타석에 들어선 이현곤은 2-3 풀카운트에서 상대 선발 임동규의 136km짜리 직구를 통타해 비거리 105m의 좌월 2점 홈런을 뽑아냈다. 시즌 3호.

계속된 공격에서 '용병타자' 스캇도 그동안의 부진을 말끔히 씻어내는 좌월 솔로포로 점수를 보탰다.

KIA는 3회에도 선두타자 김원섭의 3루타와 장성호의 2루타로 1점을 추가한 뒤 이재주의 2루타에 이은 이현곤의 좌전 안타 등을 묶어 4점을 더 보탰다. KIA는 7-2로 앞선 7회에도 대거 5점을 추가하며 대승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이용규 "안타왕 내 것" LG 이병규



이용규 105개 단독1위
이병규 4개 차로 추격

KIA의 이용규와 LG 이병규의 최다 안타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용규는 14일 현재 안타 109개로 안타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그 뒤를 이병규가 105개로 바짝 쫓고 있다. 세자릿수 안타를 쌓아두고 있는 선수는 8개 구단을 통틀어 이들 2명 뿐이다.

최근까지 지난해 '안타왕' 이병규가 줄곧 선두를 달려왔지만 지난 10일을 정점으로 이용규가 1위를 탈환한 상태.

이에따라 페넌트레이스 종반에 펼쳐질 최다안타 레이스는 베테랑과 신예 좌타자, '빅스타'와 '영건' 의 대결로 좁혀질 전망이다.

프로 10년차인 이병규는 올 시즌을 포함해 7시즌에서 3할이 넘는 타율을 자랑한 한국의 간판타자로 1999년, 2000년, 2001년, 2005년 등 4차례나 최다안타 1위를 차지한 '거물' 이다.

이에반해 프로 3년차인 이용규는 지난해 처음으로 한 시즌을 풀타임으로 소화한 신인으로, 이름이나 몸값면에서 이병규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왜소하다.

하지만 올 시즌 KIA의 '리딩히터' 로 자리매김한 이용규의 활약은 놀랍다.

이용규는 이날 현재 타율 0.325, 최근 5경기 타율은 0.381을 기록할 만큼 KIA 타선의 핵심이 되고 있다.

지난주 마지막 경기였던 13일 SK전만 놓고보더라도 이용규는 0-1로 뒤진 1회 내야안타로 출루한 뒤 장성호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았고, 2회말에는 중전안타로 나가 2,3루를 연달아 훔쳐내는 등 5타수 3안타, 2도루, 2득점으로 2천600여 홈팬들을 열광시켰다.

시즌 종반으로 치달을 수록 야구팬들의 흥미를 끌고 있는 이용규와 이병규의 안타 경쟁은 안타왕을 차지해야 할 각자의 절박한 동기가 있어 더욱 뜨겁다.

이병규는 올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선수(FA)가 되기 때문에 '대박'을 위해서라도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베어벡호 최대의 적은 무더위

오늘 오후 7시 대만과 아시안컵 예선 2차전
현지 낮 최고 기온 30도·습도 80% 웃돌아

'최대의 적은 무더위'

대만전을 치르기 위해 타이베이에 머물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최대의 적' 은 대만 축구대표팀이 아닌 살인적인 무더위가 될 전망이다.

이원재 대표팀 미디어담당관에 따르면 14일 밤 대만 타이베이 장제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표팀은 냉방시설이 잘 돼 있는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기온은 한국보다 크게 높지 않았지만 높은 습도 때문에 숨을 들이쉴 때마다 뜨거운 기운이 몸 안으로 빨려 들어온 것. 피부도 이내 끈적끈적해 지더니 금세 땀 방울이 송송 맺히기 시작했다. 한여름에 대만은 낮 최고 기온이 30℃를 약간 웃돌지만 습도가 80% 이상이나 된다.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아 한증막에 들어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쩌다 불어오는 바람도 전혀 상쾌하지 않고 열기를 한껏 머금어 찝찝하긴 마찬가지였다.

대표팀은 대만의 무더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진행된 소집 훈련에서 적응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대만의 무더위는 그 명성대로 한국보다는 한 수 위였다. 해가 떨어진 밤에 이 정도이면 실전을 치르는 오후에는 무더위의 정도가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 건강과 컨디션을 책임지는 주치의 김현철 박사도 걱정이 앞서는 가운데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김 박사가 내놓은 비결은 선수들이 잠을 잘 때 방 온도를 최대한 높게 맞춰 최대한 빨리 무더위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NBA 파워' 실감

월드바스켓볼챌린지 4차전
한국, 63대116으로 완패
미국, 기교 유감없이 발휘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이 세계 최강인 미국을 상대했으나 역시 역부족이었다.

한국은 15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비타500 월드바스켓볼챌린지(WBC) 2006 4차전 미국과 대결에서 63-116으로 완패했다.

오는 1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팀을 상대로 한 WBC 마지막 경기인 이날 한국은 미국에 져 터키와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등 유럽 강팀과의 대결을 포함해 4전 전패의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방성윤(21점)의 슈팅은 빛났다.

또 '아르헨티나 특급' 김민수(13점)가 덩크를 터트리는 등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줬고, 이규섭(11점)은 슈터로서, 김주성(11점)은 국내 대표 센터로서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해 관중의 박수를 받았다.

농구 유학생으로 NBA 진출을 노리는 고교생 김진수는 NBA의 거목들과 맞서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정교한 장거리슛과 폭발적인 골밑 돌파력 등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공격력과 고공 수비 등 세계 정상급 플레이를 연출하는 미국을 감당하기는 불가항력이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젊은 피를 대거 수혈하고 높이를 키운 팀을 구성했으나 전술력 등에서 숙제를 남겼다. 한국은 졌지만 1만2천여명의 관중은 즐거웠다. 화려한 덩크 등 NBA의 파워와 기교, 높이의 농구가 유감없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인기는 역시 '차세대 조던'인 르브론 제임스(23점)가 독차지했다. 1쿼터 4분여를 남겨두고 호쾌한 첫 덩크슛을 폭발시킨 제임스는 2쿼터부터 위력적인 슬램덩크와 클러치 3점슛을 마음껏 발휘, 한국의 팬들에게 자신의 장기를 마음껏 과시했다. 제임스는 5개의 덩크를 작렬시키는가 하면 6개의 리바운드와 각 4어시스트, 4가로채기를 성공시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진가를 보여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